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엄마한테 쓴다.

27 p

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문제집이랑 한  
 자를 했다. 그래서 조금더가 10:30  
 분에 홈플러스에 갔는데 문이 닫혀져  
 있었다. 그래서 포기 하고 집에 가와  
 서 민준이를 만났다. 그래서 놀이터  
 가서 놀았다. 거기서 내가 아는 형  
 아들이 와서 피구랑 볼라볼 도했다.  
 그리고 나서 저녁 6:45분에 들어왔다.  
 그리고 남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  
 서 엄마가 날 엄청 혼냈다. 그런  
 데 내 잘못도 있다. 내가 계속  
 놀고 싶다는게 나의 잘못이었다. 앞으로  
 는 놀때는 놀고, 밥먹을때는 밥먹고,  
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.